

보성군, 보성사랑·아이사랑 7남매 가정 ‘집다운 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 찾아 새집으로 들어가는 희망을 쏘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행복 ‘家득한’ 주거 공간 마련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보성군 문덕면 7남매 다둥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군 문덕면 운곡마을 7남매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사업을 마치고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7일 보성군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가 보성사랑·아이사랑 업무협약 체결 후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서비스와 적정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단열과 환기가 취약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집에 거주했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7남매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실, 아동 성별에 따른 방을 배치하고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2층 옥탑방도 설치하는 등 안락한 주거 공간을 완공했다.

김규용 부군수는 “보성군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민·관이 상호협력·연계가 중요하다.”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관내 주민과 초록우



산어린이재단이 연계한 보성사랑·아이사랑 캠페인 모금을 추진해 도움이 될

요한 위기 아동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맞춤형복지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해남군, ‘청년 두드림 옷장’ 사업 운영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제출하면 된다.

5일 동안 대여 가능하며, 사용한 정장 반납은 택배 및 대리 반납이 아닌 해남청년두드림센터에 직접 반납하고, 반납된 정장은 깨끗하게 센터에서 세탁하여 청년들에게 재대

여한다. 해남군이 청년들이 구직 면접시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두드림센터를 통해 면접정장을 대여하는 ‘청년 두드림 옷장’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대여 정장은 재킷, 바지, 치마로 구성되었으며, 해남청년두드림센터 누리집(https://www.haenam.go.kr/youth)을 통해 사이즈와 인적사항 기재 후 신청가능하다. 방문 대여 시 자신이 응시한 면접

여한다. 관내 청년(18세 이상 ~ 49세 이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시간(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동안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두드림 옷장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육 개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표)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과정을 시작으로 첫 교육을 개시했

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표준과정(40시간), 전문과정(32시간)으로 나뉜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 총 24회차 교육 진행으로 교육 회차를 늘려 교육생들의 교육 기회를 높이고, 해남과 영광으로 찾아가는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두근두근 첫 입학, 축하해”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1044명, 나주시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나주시가 생애 첫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난 5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4년도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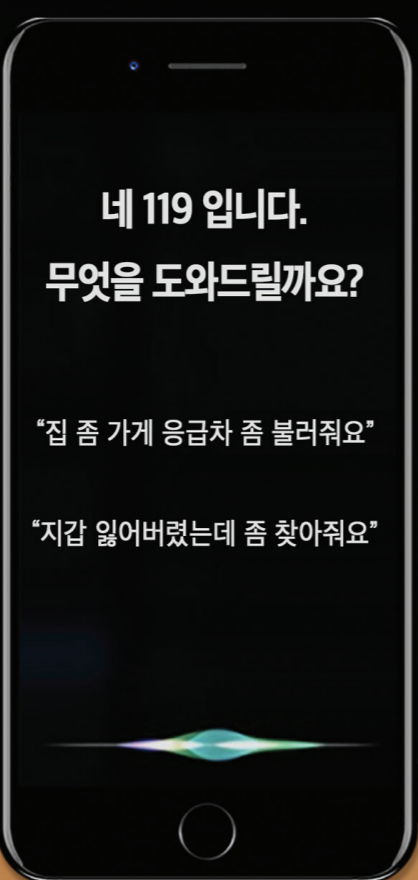
년 학생이다. 학생 1인당 나주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류 또는 모바일 정책수당으로 5월부터 지급한다. 입학축하금은 학용품, 신발, 책가방 구

매 등 자녀 입학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이다. 오는 4월까지 취학 아동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